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 표상 모델과 또래 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Quality: The Role of Children's 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of Peers

나 유 미**
Rah, Yu-m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ren's peer representations are associated with peer acceptance and whether attributions and goals are related to representations about behavioral responses in ambiguous provocation and conflict situations. The subjects were 119 5th-grade children responded to 4 hypothetical situations.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positive representations about peer conduct in ambiguous provocations were related to their higher level of peer acceptance, and positive representations about a friend in conflict situations were associated with their perceived positive qualities of friendship. Children's positive attribution and relational goal orientation were associated with relational behavioral response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for some goals and behavioral responses, with girls displaying a more relational goal and behavioral response orientation than boys.

- 내적표상모델(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또래수용(Peer Acceptance)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본 연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심리학과의 Social Development Project의 database를 이용하여 수행된 것임.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I. 서론

사회적 사건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고 표상하는 데 있어 사회적 관계에 대해 형성한 기존의 인지모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 관계에 대한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사회적 지식 구조(social knowledge structure), 사회적 도식(schemata),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 등 각기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론들은 모두 또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동의 생각이 그들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Crick과 Dodge(1994)의 사회 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단서를 접하게 될 때 그것을 부호화하고 해석한 후 그 상황에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여 그 상태로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 특정 반응을 결정한 후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아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한 지식구조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즉, 아동은 이전에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겪은 여러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사회적 도식을 형성하여 기억 속에 저장해 둔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구조가 되며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표상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이후에 다른 또래와 만나

게 될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또래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사회적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함으로써 또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친사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모델과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는 애착이론에서도 제시된다(Bowlby, 1969). 애착이론은 주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이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 메커니즘으로서 '내적 실행모델'을 제시한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은 '실행모델'의 형태로 표상되며, 이 실행모델속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게되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온정있는 사람이라는 형태로 실행모델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Sroufe & Fleeson, 1986).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은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실행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인 방식의 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모델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상하는 데 작용하며, 자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나갈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실행모델은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상을 넘어서서 아동이 보다 넓은 사회적 세계로 관계 영역을 확대해나갈 때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일반화될 것이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6). 즉, 또래와의 관계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에 대한 실행모델 또한 발달되며 이것은 계속적으로 또래와의 관계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또래에 대한 실행모델은 양육자에 대한 실행모델과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초기 양육자, 즉 부모에 대한 실행모델이 토대가 되어 발달될 것으로 본다. 우선 가장 초기의 사회적 관계이며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에 대해 실행모델을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때 영향을 미치며 계속적으로 또래에 대한 관계 모델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애착이론에서 실행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관점은 대상관계학과의 '관계 도식(relational schemas)'이라는 관점의 메커니즘과도 유사하다(Baldwin, 1992; Nelson, 1986). Baldwin은 사람들이 과거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에 관한 일정한 패턴의 규칙성을 표상하는 인지구조를 발달시키며 이 인지구조는 현재의 행동과 새로운 사회적 정보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같이 몇몇 이론에서 제시되었듯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모델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작동되는 몇가지 인지 표상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귀인(attributions), 목적(social goals), 전략(social strategies) 등이 있다. '귀인'은 특정 사회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는 해석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목적을 구성하고 반응 행동을 선택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Crick & Dodge, 1994).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한 표상은 적대적 귀인과 그에 따른 부적응적인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래의 의도에 대해 적대적인 귀인을 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거부되거나 공격적인 아동인 경향이 있었으며(Dodge et al., 1986; Feldman & Dodge, 1987), 보다 특수한 사회적 부적응 행동으로서 보복이나 반격하기 위한 공격 행동을 보이는 집단의 아동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Crick & Dodge, 1992). 또한 Quiggle과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은 아니지만 우울한 집단의 아동들 또한 또래의 의도에 대해 적대적인 방향으로 편파된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인 편파가 또래에 대해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지표상의 또 다른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목적'은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상태(a state)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아동이 보이게 될 사회적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Crick & Dodge, 1994). 예를 들어, 친구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상황에서 어떤 아동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고, 어떤 아동은 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친구에게 보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이런 여러가지 목적들은 이후에 그들이 보이게 될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커다란 개인차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예를 들어, Erdley와 Asher (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아동들은 이 상황을 유발시킨 아동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선택한 아동들은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유발시킨 아동과 잘 지내려는 목적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같이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원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 즉 행동 전략을 다르게 선택할 것이다. Chung과 Asher(1996)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선택하는 행동전략과 그들의 목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가 평정한 아동의 행동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또래에 의해 친사회적인 아동으로 평정된 아동들은 갈등상황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은 관계유지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 목적’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는 또 다른 사회관계 인지모델의 한 요소로서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을 포함했다. Crick과 Dodge(1994)에 따르면, 아동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회적 행동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 반응행동들은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들로서, 목적을 얻기 위한 전략인 경우도 있고, 목적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인 경우도 있다. 이 반응목록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응 결정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경향성과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특정 상황에서 지니는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이 선택하는 전략과 함께 자극 유발 상황에서 자극유발 아동이 처벌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아동의 의도 귀인, 목적, 반응행동 표상이 서로 어떤 양상으로 관련되

는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선행연구 결과들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인지모델 중 아동이 지향하는 목적은 그들이 선택하게 될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며,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아동이 가설 상황 속의 주인공 아동의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것으로 귀인을 할수록 공격적 반응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갈등상황에서도 아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긍정적 목적을 지향하는 경우라면 그들이 표상하는 반응행동 또한 관계유지를 위한 긍정적 행동일 것이다. 그런데 Crick과 Dodge(1994)의 설명대로, 목적은 반응행동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은 아동이 사회적 단서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다시 특정 반응행동들을 탐색하여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반응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의도 귀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 아동의 또래 관계 표상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갈등상황에서 남이는 여아들보다 통제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회피적인 목적은 덜 지향한다고 보고했으며 (Chung & Asher, 1996), 여아들이 보다 더 친사회적인 시도를 하는 반면 남아들은 위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했다(Miller et al., 1986). 본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남아와 여아간에 지향하는 목적과 반응행동 표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사회관계 인지표상의 주요 구성요소인 ‘의도 귀인’, ‘목적’, ‘반응행

동 표상'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인지표상에 관한 선행연구들(Chung & Asher, 1996; Erdley & Asher, 1996)은 주로 가설상황에서 아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그들의 또래수용도나 친구관계의 질에 대해서 검증하지는 않았다. 보다 최근에 Rose와 Asher(1999)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목적'과 '전략' 선택이 친구의 수와 자신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복의 목적을 지향하며 적대적인 전략을 표상하는 아동들은 친구의 수가 적었으며 친구관계의 질도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표상과 또래 관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되, 아동의 표상을 두 가지 맥락(애매모호한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또래에 대한 아동의 인지모델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Crick & Dodge, 1994; Dodge et al., 1986). 예를 들어, 애매모호한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작동하는 표상모델의 결정적 요소는 서로 다르다(Burks & Parke, 1996). 즉,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작동되는 주요 과정은 어떤 방향으로든 귀인을 하여 그 상황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귀인이 주요요소가 된다. 그러나 갈등상황의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과정이므로 이 때에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귀인은 부차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작동되는 아동의 표상이 또래수용과 친구관계의 질과 각기 독특하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았다.

또래 수용과 친구관계는 아동이 또래 관계에

서 겪는 두 가지 다른 경험으로서, 또래 수용은 일반적으로 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 친구관계는 경험을 공유해 온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이원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둘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Bukowsky & Hoza, 1989; Parker & Asher, 1993a). 다시 말해, 또래 수용은 한 개인을 향한 집단의 관점을 나타내는 일반적, 집단 지향적, 일방적 구인을 일컫으며, 친구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경험을 일컫는 구체적, 이원적, 양방적 구인을 말한다. 따라서 두 가지 또래 관계에서의 적응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해 관계가 포함되는 갈등 상황은 친구관계에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친구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특정한 친구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또래관계에서는 갈등상황보다는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이 더 빈번하며 그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이 또래수용과 더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그들의 관계표상 모델이 일반적인 또래관계에서의 수용, 지각된 친구관계의 질 및 관찰된 친구관계의 질에 어떠한 양상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미국 서부 지역의 9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아동 119명(남아63명, 여아56명)이었다. 이들은 10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측

정 절차를 통해 또래수용도를 평가하여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에서부터 높은 아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표하는 집단의 아동들을 선정하는, 2단계 표집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다양한 또래 수용도를 지닌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아동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상류층에 이르며, 표집의 50% 이상이 Euro-American이며, Latino 40%, 나머지 10%는 African-American과 Asian-American, 기타 인종이었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

본 연구에서는 갈등상황을 묘사한 이야기 두 가지(한 예; 너는 토요일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같은 반의 다른 아이가 토요일에 생일파티에 너를 초대한다는 전화를 했고 친구는 초대되지 않았다. 너는 파티에 가고 싶었는데, 네 친구는 자기와 영화 구경가기를 원했다.)와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을 그린 이야기 두 가지(한 예; 너는 학교에서 내 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완성해서 매우 뿌듯했다. 어떤 아이가 주스를 들고서 네가 완성한 프로젝트를 보러왔다. 잠시 네가 탄 테를 보고 있다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아이가 네 프로젝트에 주스를 쏟아서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가 제시되었다.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에 대해서는 아동의 의도에 대한 귀인과 아동의 행동전략, 그 아동이 얼마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지향하는 목적 등을 질문하였고, 그 중 전략과 처벌판단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반응행동 표상’을 측정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전략, 목적을 질문하였다.

각각의 이야기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의도’ 평정을 위해서는 고의적인지 실수로 인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행동반응’은 관계 유지, 공격, 회피, 무시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섯가지 반응(예; 프로젝트를 고칠 것이다.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나도 그 아이의 프로젝트에다 주스를 엮질러버릴 것이다. 왜 그랬는지 물어볼 것이다.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피할 것이다. 그 아이를 나쁜 애라고 부를 것이다.)을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반응에 대해 자신이 그렇게 할 것 같은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했다. 그리고 그 아동이 처벌받아야 하는 정도도 3점 척도로(처벌받지 말아야한다. 조금 벌받아야 한다. 많이 벌받아야한다)측정되었다. 지향하는 ‘목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유지, 공격, 회피, 보복, 자신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반응(예;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해주려고 할 것 같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할 것 같다. 그 아이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 같다. 내 프로젝트를 다시 고치려 할 것 같다. 그 아이와 앞으로도 잘 지내려 할 것 같다.)에 각각 자신이 지향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했다.

추후 자료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반응행동 표상’과 ‘목적’에 대해서는 각 상황별로 두 가지 이야기 과제에 대한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몇 가지 요인으로 축소하였다.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에서의 ‘목적’은 관계지향적 목적, 자기보호적 목적이 추출되었고, ‘반응행동 표상’은 공격적 반응만이 추출되었다. 갈등상황에서의 ‘목적’은 관계지향적 목

적, 적대적 목적이 추출되었고, ‘반응행동 표상’은 관계유지 반응, 공격적 반응, 회피 반응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평균내어 해당 요인의 점수를 산출했다. ‘의도 귀인’에 대한 점수화는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의 두 이야기과제에 대해 아동이 응답한 것을 평균내어 점수화했다. 즉, 두 이야기과제 모두에 고의적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1 점, 한가지에만 고의적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1.5 점, 두가지 모두에 실수였다고 응답한 아동은 2 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귀인을 한다고 간주했다.

2) 아동의 또래 수용

또래 수용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학급에 있는 아동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사회측정 면접(Asher, Singleton, Tinsley, & Hymel, 1979)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학급의 학생들에게 같이 놀이하고 싶은 아동 세 명씩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이 지명 받은 수를 성별 및 각 학급내에서 표준화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3) 친구관계의 질

(1)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FQQ) : Parker와 Asher(1993b)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친구 또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40개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이 실제와 일치하는 정도를 아동 스스로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Parker와 Asher는 6개 하위척도(갈등, 친근한 상호노출, 도움과 지도, 갈등 해결, 관심과 인정, 동반)를 산출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축소를 위해 promax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요인(긍정적 관계, 갈등)으로 점수화되었다. Parker와 Asher의 6

개 요인 중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속한 항목들 대부분이 ‘긍정적 관계 요인’에 포함되었고, ‘갈등’ 요인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The Observed Friendship Quality Scale(OFQS) : Flyr, Howe, & Parke(1995)에 의해 개발된 coding system으로서, 대상 아동과 그의 친구가 관찰실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후, 대상아동 및 친구의 개별 행동에 초점을 둔 항목 17개와 친구와의 상호적인 관계 특성에 초점을 둔 항목 10개에 대해 각 항목의 질적 수준을 5점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7개의 개별항목은 각 아동이 친구관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둔 내용(예; 친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친구에게 조종당하고 추종자처럼 놀이한다, 친구의 특성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등)이며 10개의 관계항목은 친구관계의 이원적 양상을 다룬 것이다(예; 갈등이나 의견불일치를 보인다, 신체적으로 밀접하게 놀이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다, 등).

대상 아동에게 교내 실험실로 그의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도록 한 다음, 아동과 친구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유놀이 상황, 협력하여 세 가지 활동(생일 파티, 잠옷파티, 캠핑)에 대해 계획세우기였다. 활동계획은 누구와 언제 어디로 거기서 어떤 종류의 놀이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드시 합의를 보도록 지시되었다.

각 항목당 4가지 과제에서 보인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27개 항목 각각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개별항목

17개와 관계항목 10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정보공유 등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 세 요인에 대한 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정 결과를 평균 내어 점수화했다. 각 항목당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여 평균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r = .85(.61 \sim .99)$ 였다.

3. 분석방법

또래 관계에 대한 아동의 표상모델 중 의도귀인, 목적, 반응행동 표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표상모델과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성차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paired t-test, 표상모델과 또래수용, 친구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을 통제한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또래에 대한 표상모델에서 '의도 귀인', '목적', '반응행동 표상' 간의 관계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의 과제와 갈등상황 과제 각각에 대해, 표상모델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문제 유발 아동의 행위를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실수였던 것으로 귀인할수록 관계지향적 목적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자기보호적인 목적에는 더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격적인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 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목적'과 '반응행동 표상' 간의 관계 검증결과에서는 관계지향적 목적을 가질수록 공격적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 정도는 낮았고, 자기보호적인 목적에 높게 반응할수록 그들의 반응행동 표상에서도 공격적인 경향이 있었다.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표상에서도, 관계지향적 목적을 지향하는 아동일수록 관계유지를 위

<표 1> '의도 귀인', '목적', '반응행동 표상' 간의 상관관계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과제	1	2	3		
1. 긍정적 귀인	-				
2. 관계지향적 목적	.44*	-			
3. 자기보호적 목적	-.26**	-.21*	-		
4. 공격적 반응행동	-.39**	-.83**	.25**		
갈등상황 과제	1	2	3	4	5
1. 관계지향적 목적	-				
2. 적대적 목적	.00	-			
3. 관계유지 반응행동	.30*	-.27**	-		
4. 공격적 반응행동	-.07	.58**	-.34**	-	
5. 회피적 반응행동	-.06	.28**	-.24**	.38**	-

* $p < .05$, ** $p < .01$

한 반응행동을 표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적대적 목적을 지향할수록 공격적 반응행동과 회피적인 반응행동을 표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아동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반응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의도 귀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안되었듯이, (a) 목적과 반응행동 표상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b) 목적과 귀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c) 귀인과 반응행동 표상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상태라면 회귀분석을 통해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즉,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예언변인의 효과가 사라진다면 그 예언변인은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기보다는 매개변인의 효과에 의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갖는 것이다. 공격반응행동에 대한 회귀등식에 첫 번째로 긍정적 귀인 변인을 투입하여 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두 번째로 관계지향적 목적을 투입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관계지향적 목적

은 여전히 공격적 반응행동 표상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관계지향적 목적은 귀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반응행동의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보호 목적이 귀인의 매개효과로 인해 공격적 반응행동 표상과 연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방식의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다. 자기보호 목적은 귀인을 통제 한 후 공격적 반응행동에 대한 이전의 유의한 효과가 사라졌다. 따라서 자기보호 목적은 긍정적 귀인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공격적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또래에 대한 표상모델과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성차

아동의 성에 따라 또래에 대한 표상모델과 친구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표 2> 공격적 반응행동 표상에 대한 관계지향적 목적과 귀인의 효과: 회귀분석

종속변인 : 예언변인	β	F증가량	df
긍정적 귀인 : 관계지향적 목적	.44	28.57***	1, 118
공격반응 : 관계지향적 목적	-.83	256.52***	1, 118
공격반응 : step 1. 긍정적 귀인	-.39	20.94***	1, 118
step 2. 관계지향적 목적	-.82	199.03***	1, 117

*** p<.001

<표 3> 공격적 반응행동 표상에 대한 자기보호목적과 귀인의 효과: 회귀분석

종속변인 : 예언변인	β	F증가량	df
긍정적 귀인 : 자기보호 목적	-.26	8.54**	1, 118
공격반응 : 자기보호 목적	.25	7.89**	1, 118
공격반응 : step 1. 긍정적 귀인	-.39	20.93***	1, 118
step 2. 자기보호 목적	.16	3.4	1, 117

** p<.01, *** p<.001

표 4>에서 보듯이, 표상 모델에 관한 성차 분석에서, 애매모호한 문제발생상황의 과제에서는 ‘관계지향적 목적’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고, ‘자기보호적 목적’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었다. ‘공격적 반응’에 대한 표상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다. 갈등상황 과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 중에서는 ‘적대적 목적’에 대해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각각의 성별에 따라, 지향하는 목적과 그들의 반응행동들 사이에서 특정 목적과 반응행동이 다른 목적과 반응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남아의 경우,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

황에서 관계지향적 목적이 자기보호적 목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표상되었으며($t=3.81, df=62, p<.0001$), 갈등상황 과제에서도 관계지향적 목적이 공격적 목적에 비해 더 많이 표상되었다($t=18.68, df=61, p<.0001$).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들간의 상대적 수준은 공격적이거나($t=-14.52, df=61, p<.0001$) 회피적인 반응행동($t=-12.25, df=61, p<.0001$)보다 관계유지 반응에 대한 표상이 더 강하였고, 공격적 반응보다 회피적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이 더 강하였다($t=-2.17, df=61, p<.05$). 여아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관계지향적 목적이 자기보호적 목적보다 더 많이 표상되었으며($t=8.09, df=55, p<.0001$), 갈

<표 4> 또래 표상모델과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성차

	남			여			t
	n	M	SD	n	M	SD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긍정적 귀인	63	1.79	.33	56	1.87	.28	-1.42
관계지향적 목적	63	3.93	1.10	56	4.34	.82	-2.29*
자기보호적 목적	63	2.93	1.49	56	2.67	1.28	1.05
공격적 반응	63	1.87	.89	56	1.53	.76	2.21*
갈등상황							
관계지향적 목적	62	4.27	.78	56	4.11	.81	1.15
적대적 목적	62	1.44	.96	56	1.18	.49	1.81+
관계유지 반응	62	3.88	.95	56	3.83	.79	.27
공격적 반응	62	1.31	.69	56	1.22	.51	.78
회피적 반응	62	1.54	.90	56	1.55	.89	-.08
FQQ							
긍정적	61	3.88	.74	56	4.10	.71	-1.66+
갈등	61	1.65	.72	56	1.73	.84	-.51
OFQS							
긍정적	61	29.36	6.14	52	32.13	4.84	-2.63*
부정적	52	10.61	2.73	52	10.35	2.87	.49
정보공유	61	7.93	1.97	52	8.42	2.39	-1.19

* $p<.05$, + $p<.10$

등상황 과제에서도 관계지향적 목적이 공격적 목적에 비해 더 많이 표상되었다($t=24.31, df=55, p<.0001$).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들에는 공격적이거나($t=-20.27, df=55, p<.0001$) 회피적인 반응행동($t=-13.62, df=55, p<.0001$)보다 관계유지 반응에 대한 표상이 더 강하였고, 공격적 반응보다 회피적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이 더 강하였다($t=-2.73, df=61, p<.01$).

결과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그들이 또래관계에서 지향하는 목적이나 반응행동에 대한 상대적 선택 패턴은 유사하나, 남아와 여아간에 표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에서처럼, 문제발생이나 갈등상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지향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유사한 결과이다.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성차 검증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자기보고에 의한 친구관계의 질(FQQ)에서는 여아가 다소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갈등’ 요인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관찰된 친구관계의 질(OFQS)에서는 ‘긍정적 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부정적 관계’와 ‘정보공유’ 요인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정도의 갈등 수준을 보고 하더라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Bukowsky et al., 1994; Parker & Asher, 1993b; Rose & Asher, 1999)과 일치한다.

3. ‘의도 귀인’, ‘목적’, ‘반응행동 표상’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계

또래에 대한 표상모델과 또래수용 및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과제와 갈등상황 과제별로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아동의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표상모델과 또래수용, 자기보고에 의한 친구관계의 질(FQQ), 관찰에 의한 친구관계의 질(OFQS)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 대한 아동의 표상모델은 주로 또래수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문제유발 아동의 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으로 귀인을 할수록, 그리고 관계지향적 목적에 높게 반응하는 아동일수록 또래수용도가 높았다. 반면, 자기보호적 목적에 높게 반응하는 아동일수록, 그리고 공격적인 반응행동을 표상할수록 또래수용도는 낮았다. 또한 자기보호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아동일수록, 실제 친구관계에 대한 관찰에서 친구와 서로 정보를 교환 또는 공유하는 행동을 덜 보이는 편이었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의 아동의 목적과 반응행동 표상은 자기보고에 의한 친구관계의 질의 긍정적 혹은 갈등적 양상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관찰된 친구관계의 질에서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관계 양상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귀인과 친구관계의 질 간에도 유의한 관계는 없었다.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표상은 자기보고에 의한 친구관계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관계지향적 목적에 높게 반응하는 아동일수록 FQQ에서 긍정적인 친구관계 양상을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수준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은 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또래로부터의 수용정도도 낮았다.

〈표 5〉 아동의 표상모델과 또래수용, 친구관계의 질간의 상관관계

	또래수용	FQQ		OFQS		
		긍정적	갈등	긍정적	부정적	정보공유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긍정적 귀인	.23*	.09	-.00	.08	-.04	.01
관계지향적 목적	.27**	.07	-.02	-.05	-.04	-.03
자기보호적 목적	-.19+	.07	.06	.06	.03	-.21*
공격적 반응	-.19+	-.04	-.07	.16	.15	-.07
갈등상황						
관계지향적 목적	.07	.31**	-.15	.05	.10	-.13
적대적 목적	-.16	-.06	-.00	-.15	-.02	-.16
관계유지 반응	-.04	.12	-.05	.11	-.06	-.11
공격적 반응	-.20+	-.19*	.05	-.03	.10	-.10
회피적 반응	-.10	.04	-.01	.13	-.08	.04

* p<.05, ** p<.01, + p<.1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또래에 대한 아동의 표상이 또래수용 및 그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으로서 사회정보처리 모델이나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적 표상 모델의 작용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한 아동의 표상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상황에서의 표상이 그들의 또래 수용과 친구관계의 질을 이해하는 다소 다른 지표가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대부분 또래로부터의 수용 정도와 관련되었고 친구관계의 질을 설명해주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의도가 불분명한 문제가 유발된 상황에서 문제 유발 아동의 행위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귀인하는 아동일

수록 그들의 또래수용도는 낮았다. Dodge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많은 연구들(Dodge, 1980, Weiss, Dodge, Bates, & Pettit, 1992)에서도 적대적인 방향으로 편파된 귀인을 하는 아동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서 또래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귀인 성향은 친구관계의 질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래의 의도에 대한 귀인은 또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일반적인 또래 관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친구관계의 질을 예언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McKinnon-Lewis, Rabiner, & Starnes(1999)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아는 사이의 또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또래 관계와 관련이 있었고, 처음 보는 또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또래 관계와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Rose & Asher(1999)의 연구에서는, 또래 수용과 친구관계의 질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서 또래 수용과 그들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다소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친구관계의 질과 아동의 일반적인 또래에 대한 믿음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전에 학급내에서 그들이 경험한 또래 관계는 그들의 또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또래에 대한 귀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이는 또다시 또래에 대한 반응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또래 수용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잘 모르던 새로운 또래나 친구관계에 있는 상대 아동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는 데는 이외의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문제 유발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은 또래수용을 예측하는 데는 의미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친구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상모델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문제발생 상황에서 보복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문제 유발 아동과 계속해서 잘 지내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아동들은 실제로 또래로부터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의도가 분명치 않은 피해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향하는 아동들, 그리고 보복하거나 언어적인 공격반응 및 상대 아동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표상하는 아동들은 또래수용도가 낮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동들은 문제가 유발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문제 유발 아동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회피하려 할 수 있으며 상대의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해석하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은 또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공격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반응들을 표상하도록 유도하기

쉬운 것 같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표상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및 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검증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 중 흥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기보호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아동들이 실제 그들의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서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들이 높은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친밀한 상호간의 노출을 덜 하는 편이라는 연구결과(Parker & Asher, 1993b)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표상모델은 또래수용보다는 친구관계의 질에서 보다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던 가설과 일치하는대로, 그들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갈등이 유발될 경우에 그들이 계속 친구와 잘 지내려는 목적을 가지는 아동들일수록 실제 그들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도움을 나누며 인정하고 갈등을 잘 해결해나가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복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친구관계의 질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얻지 못했으나, 보복하려는 목적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공격적인 반응행동을 더 강하게 표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런 아동들은 그들의 친구관계를 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친구관계의 질에서는 별다른 관련성을 얻지 못했다. 이는 친구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와 관찰을 통해 파악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을 자기보고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보다 주관적이고 내적인 관계 양상을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찰을 통한 평가는 친구 간의 갈등해결 방법이나 놀이 교환의 인지적 정교성 등을 파악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다(Flyr, 1996). 친구에 대한 표상 모델은 자신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의 질에 더 잘 반영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또래 수용과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표상모델은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친구관계에 대한 표상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잘 드러나며 이것은 갈등의 관리가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표상 모델의 요소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결과들(Chung & Asher, 1996; Erdley & Asher, 1996; Rose와 Asher(1999)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귀인을 하고 지향하는 목적이 긍정적이면 반응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표상을 하였다. 그런데 귀인성향이 그들의 반응행동 표상에 영향을 준다는 Dodge와 그의 동료들의 많은 연구결과들에 덧붙여, 아동이 지향하는 목적 또한 반응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Coie, Dodge, & Kupersmidt, 1990; Dodge, 1986), 목적은 아동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즉 귀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점이 제시됨에 따라(Chung & Asher, 1996; Crick & Dodge, 1994) 이들 요소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아동이 관계지향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에 이것은 긍정적인 귀인과 관련될지라도 귀인성향과는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반응행동 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기보호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대적 귀인을 하도록 하여 또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행동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요소

들간의 효과의 방향은 일정하다기보다는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상호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Dodge(1986)의 모델에서 새롭게 개정된 최근의 사회 정보처리 모델(Crick & Dodge, 1994)에서 제안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또래에 대한 표상 모델에서의 성차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남아와 여아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여아가 더 친사회적으로 사회화되며 남아의 공격적인 행위는 좀 더 허용적이라는 관점에 일치하여, 여아가 관계지향적인 목적을 더 많이 지향하고 공격적인 반응행동에 대한 표상 수준도 더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Chung과 Asher(1996)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남아와 여아 모두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반응행동들은 적대적인 목적과 공격적 반응행동들보다는 관계지향적인 목적과 반응행동을 더 강하게 표상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다른 측정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표집이 크지 않아 남아와 여아가 그들의 또래 관계 표상에서 귀인 및 특정 목적과 반응행동 등이 서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상모델이 또래 수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정보 처리모델이나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듯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적응은 그들이 대인관계에 대해 표상하는 기존의 인지모델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때,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표상모델을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귀인과 목적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행동들을 탐색하는 내용의 처치를 실시하여 아동의 표상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연구가 선행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sher, S. R., Singleton, L. C., Tinsley, B. R., & Hymel, S. (1979). A reliable sociometric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79, 443-444.
- Baldwin, M. J. (1992). Relational schema and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112, 461-4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during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kowsky,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Bukowsky, W. M. & Hoza, B., & Boivin, M.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al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71-484.
- Burks, V., Dodge, K., Price, J., & Laird, R. (1999). 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of peer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02-810.
- Chung, T. & Asher, S.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2).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ttendon, P. M. & Ainsworth, M. D. S.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In D. Cicchetti & V. Car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432-46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159-18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 213).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rdly, C. & Asher, S. (1996). Children's social goals and self-efficacy perceptions as influences on their responses to ambiguous provocation. *Child Development*, 67, 1329-1344.
- Feldman, E. & Dodge, K. A.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ometric status: Sex, age, and situational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211-227.
- Flyr, M. L. (1996). The influence of parental advice giving on children's friend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Flyr, M. L., Howe, T., & Parke, R. D. (1995). Observed friendship quality scale. Unpublished coding system,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43-548.
- McKinnon-Lewis, C., Rabiner, D., & Starnes, R. (1999). Predicting boys'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The role of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boy's beliefs about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32-639.
- Nelson, K. (1986). Event knowledge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K. Nelson (Ed.), *Event knowledge: Structure and function i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93a). Beyond group acceptance: Friendship adjustment and friendship quality as distinct dimensions of children's peer adjustment. In D. Perman & W. H.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4, pp. 261-294). London: Kingsley.
- Parker, J. G. & Asher, S. R. (1993b).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Quiggle, N., Garber, J., Panak, W.,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36-54), Hillsdale, NJ: Erlbaum.
- Weiss, B., Dodge, K. A., Bates,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a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63, 1321-1335.